

## 성탄절 배너와 장식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 안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본당 전면 양측에 걸리는 성탄 배너와 장식이다. 우리 교회는 학교 강당의 기능을 겸하도록 지어진 건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특히 본당 내부와 강단 전면은 회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소 삭막한 인상을 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아 교회 곳곳에 장식의 손길이 닿으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미술선교팀에서 제작한 퀼트 배너는 작년 부활절에 처음 걸리어 좋은 호응을 얻자, 뒤이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도 각 절기에 맞는 배너를 선보이게 되었다. 한 쪽이 3x6m의 크기로 양쪽으로 색채조합을 달리한 한 쌍의 배너가 걸리는데, 전체적으로는 대형 천에 프린트를 하지만 입체감과 퀼트의 맛을 내기 위해 부분적으로 안쪽에 솜을 대고 손으로 직접 바느질하는 정성을 들였다. 덕분에 차갑고 단조로운 본당에 따스함과 색채를 덧입히는 효과가 나타났다. 성탄 배너는 붉은 갈색과 초록색을 주조색으로 성탄과 관련한 이미지들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여 구성하였다. 미술선교팀에서는 배너 외에도 강단 전면에 환하게 불을 밝힌 대형 리스를 설치하고 로비 양측 계단참에도 차분한 성탄 리스를 장식하여 성탄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앞으로도 절기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배너를 계속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주현 집사〉

## 쌀나눔 결과보고



복지분과 위원회 복지팀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10월 2일 첫째주부터 4주동안 쌀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292명이 참여하여 1236만 7천원(현금), 10만원(상품권), 712kg(쌀)을 나눔 행사로 기증을 받아

16곳의 시설에 직접 쌀을 배달해 주어 주님의 교우들의 사랑을 전달해 주었다.

| 시설내용         | 기관명                           |
|--------------|-------------------------------|
| 탈북청소년대안학교    | 하늘꿈학교                         |
| 다문화가정        | 다문화센터(2)                      |
| 노숙인아식제공      | 거리의천사들                        |
| 정신지체장애시설(3)  | (구리)살롬의집, 하남(소망의집), (용인)해오름의집 |
| 말기암환자수용시설    | 봄내호스피스                        |
| 숙식기도원        | 수리봉기도원                        |
| 시각장애인시설      | (용인)소망의집                      |
| 무의탁노인 기숙시설   | 사랑나눔복지센터                      |
| 독거노인 급식시설(2) | 경로당(거여, 가락동)                  |
| 미혼모가정 기숙시설   | 신광모자원                         |
| 교회(내)        | 장애우(44명), 청년부새벽예배팀            |

##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올 해의 漢字

彩 (빛날 채)

주님의 교회 함글함을 편집실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漢字에 『彩: 빛날 채』가 선정되었다. 올해는 특별히 “예수친구사역”의 원년이기도 하며 킹덤비전 영어캠프, 평양노회, 남시찰회등 대외행사도 있었고 127건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었다. 아마도 행사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을 포착 보도

## 교회소식 이모저모

### 전라북도 미자립 교회를 다녀와서



농어촌교회협의회에서는 12월 11일 전북지역 농어촌 교회 여섯 곳을 방문하였다. 김제 만경중앙교회, 전주 사랑제일교회, 전주 승리교회, 완주 하늘샘교회, 완주 내주교회, 완주 동상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국내선교위원회 농어촌교회팀은 30여개 미자립 농어촌 교회 교회에 매월 20만원씩 재정지원하고 있다. 농어촌교회현황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들과 서면과 전화를 통해서만 알고 있어 일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교회는 전라북도 내륙에 위치한 교회이다. 방문한 교회의 출석교인들은 대부분 노인층으로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한 마리의 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려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농어촌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립이 어려워, 사역자들 생계유지와 자녀들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그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기를 바란다. 〈농어촌 교회팀 방치웅 안수집사〉

### 성경필독 시상 송년회



12월 21일(수) 성경읽기, 성경 타자 일독과 성경쓰기 일필 이상 참여한 교우들을 위한 작은 송년회가 열렸다. 함께한 교우들은 본인이 금년에 성경을 대하며 쓰고 읽고 타자를 치며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허리가 아파 서서 김치 냉장고에 노트를 놓고 쓰며 완필을 하였다는 간증,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성경을 쓰며 어깨가 아파도 자녀에게 줄 유산으로 성경을 쓴다는 간증, 일필 후 영어와 중국어 성경을 쓴다는 간증을 들으며 함께한 교우들은 “성경은 정말 귀한 것,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께한 박원호 담임목사는 2012년에는 많은 교우들이 성경 필사와 읽기, 타자에 참여하기를 바랐다. 성경 필사노트는 설만한 물가에서 구할 수 있다.

### 군경선교팀



군경선교팀에서는 12월 20일에 입대자녀들을 위한 기도모임과 성탄 선물을 만들었다. 추운 날씨와 급변하는 북한 정세에 힘들게 군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 한명하명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하였다. 유기영 목사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들지만 군생활을 잘 마쳐 그 경험으로 자기 자신의 비전과 사회 공헌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군경 선교팀에서는 2011년도에 여섯 차례의 진중세례를 통해 1,183명의 군장병의 세례를 지원하였다. 전선재 팀장은 2012년에는 거자씨들과 소그룹에서 진중세례에 참여를 희망하기를 바라며 국가와 군, 그리고 부대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하였다.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한 기억이 인상적이어서 이 글자를 떠올린 것이 아닌가싶다. 보석처럼 빛을 발하며 多彩(다채)롭게 치러진 행사의 이면에는 기획, 편성, 실시, 감독, 평가의 과정이 숨어있는 것이니 엄청난 기도와 땀의 결정체라 하겠다. 보람과 아쉬움이 점철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년에는 심기일전하여 “복음의 통로”역할을 더 잘하리라 다짐해본다.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오늘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  
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_눅 2:14

통 권 제 295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1년 12월 25일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롬 12:15

#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 2011년 교회를 빛낸 숨은 일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의교회를 빛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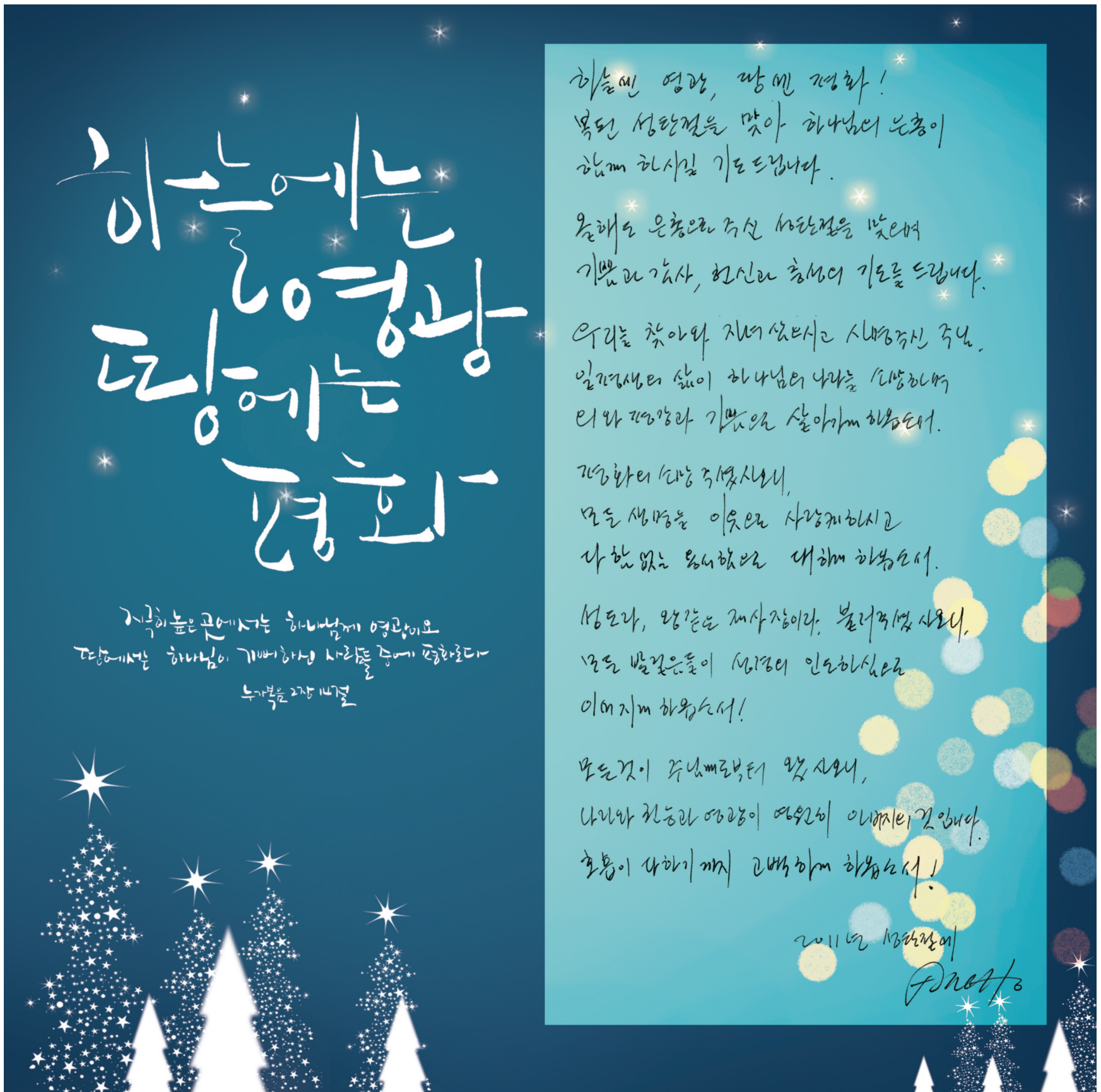
예배, 문화예술, 소그룹, 양육, 미디어, 어린이, 청소년, 20플러스, 30플러스,  
봉사, 복지, 국내선교, 북한선교, 해외선교의 각 분과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주간 목회력

〈송구영신예배〉  
-12.31(토) 저녁11시/대예배실  
〈교육목회원 성탄절 축하예배〉  
-12.25(주일) 오후4시/대예배실

〈12단계 (11단계) 개강안내〉  
-수요반(1.4 오후7:30) / 토요반(1.7 오전6:10)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1.9(월)~14(토) / 문성모 목사

〈2012년 청년부 예배 개편 안내〉  
-12.25(주일) 오후 1:30 / 중예배실  
〈2012 부활절 예배 드라마 코러스 모집〉  
분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 30명



**빛을 향한 찬양 노래** 성탄축하음악예배 시온찬양대 주관으로 열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_사 60:1-3

이사이의 고백처럼 어둠속을 헤매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지난 21일 시온찬양대 주  
관으로 열렸다. 먼저 김성구 장로(문화예술분과위원장)  
의 기도하고 박원호 담임 목사의 말씀이 있었다. 담임 목  
사는 “올해 유난히 주님을 핍박하던 많은 분들이 유명

을 달리했습니다.”라는 위트있는 말씀을 시작으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짧고 강한 성탄 메시지를 전달했다. 곧 이어 예배당 뒤편에서 웅장한 관악기 연주를 신호로 음악예배가 시작되었다. 2000여 년 전에 주께서 탄생하시기 전날 밤 있었던 사건들을 사관주인, 마리아, 목자, 현대인의 독백을 뼈대로 하고(내레이션 손정아), 강남 벨 아르모니아 오케스트라(단장 서경남)와 시온찬양대(지휘 김인수)의 하모니로 아름답고 웅장한 ‘빛의 도성’을 완성하였다. 그동안의 성탄축하 음악예배가 칸타타 형태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뮤지컬 형태(1인 다역)로 진행되어 또 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음악예배에 함께 했던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

로 화답해 주었으며, 앵콜곡은 이혜정 집사(소프라노)와 정상천 집사(베이스)가 “오 거룩한 밤”을 불러 늦게까지 함께 한 성도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였다. 시온찬양대장 권승환 집사는 “10월부터 음악예배를 준비하면서 연습할 곳이 마땅치 않아 유아부실, 유치부실, 소년부실, 소예배실을 옮겨 다니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원만하게 진행될 수 협조해 주신 교회 사무실과 해당 부서에 감사드립니다.”하며 또한 “어렵게 준비한 과정들이 있었기에 찬양대가 한층 성장하였고, 주님의 탄생을 더욱 가슴 속 깊이 감사할 수 있었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 주님의교회 전도행진 ‘새생명축제’를 돌아보며

2011년 10월 9일부터 시작된 주님의교회 전도행진인 ‘새생명축제’가 지난 12월 18일에 은혜 중 마쳤다. 새생명축제는 가족, 친족, 친구, 이웃 중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여러 행사를 통하여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초청행사였다.

지난 10월9일에 전도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22일 교회의 ‘북한돕기바자회’에 초청하여 교회의 뜻을 자연스럽게 밟도록 하였고 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구별 노방전도를 두 주간 동안 걸쳐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특별히 이 노방전도에 참가한 교인들의 마음이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벅찼던 것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었다고 새생명축제 진행스텝들이 전한다.

네 번째 단계로 주님의교회에 출석하지만 교구에 편성되지 못한 500여명의 새가족 미등록자들을 찾아 그중 120여명의 새 교인을 일일새가족 교육을 마친 후 각자의 거주지로 인도하였다.

기도로 품고, 찾아가고, 거리에서 만난 우리의 이웃을 12월3일 새생명을 위한 특별 초청의 밤에 초대하여 초청강사 이민아목사의 간증을 들었으며 11월28일부터 12월10일까지 두 주간 교구별로 다섯 개의 거주지에 오픈하우스를 운영하여 따뜻하고 열려있는 교회 공동체를 경험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12월18일 주일예배에 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온 교인들과 더불어 인사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66명의 전도대상자들 가운데 16명이 교인등록을 함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도로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오늘도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친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생명축제의 열매가 많지 않다고 혹 생각한다면 내가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10:13~14)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입을 열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정경혜 기자〉



## 주님의교회 정관 정정기사

지난 2011년 12월 11일 발행한 함글함글 제 294호의 기사 내용 중 제1면 “행정장정과 정관개정일지”는 “행정장정개정과 정관제정 일지”로, “정관 개정안”은 “정관 제정안”으로 각각 정정합니다.

또한 “2005년 3월 ‘행정장정개정소위원회’ 구성”을 추가하고, “2007년 2월 ‘행정장정 개정 위원회’ 개설 초안 마련”은 “2007년 1월 ‘행정장정 개정 위원회 위원 변경 및 개정안 마련’으로 정정하고, “2008년 10월 정책당회에서 개정안 재논의 결정”을 추가하며, “2010년 9월 ‘정관 개정

위원회’ 개설, 정관 개정안 마련”은 “2011년 2월 행정장정 개정위원회 위원 변경 및 정관 초안 마련”으로 각각 정정합니다.

또한 제2면 주님의교회 정관 제1장 제2조(목적)의 “예배 모범에 따라”는 “예배와 예식에 따라”로, 제6장 제23조(임기)의 “사무장로의 임기는 안식년 없이 만 10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는 “사무장로의 임기는 안식년 없이 만 10년으로 한다.”로 각각 정정합니다.